

■ 교육평가원 주관 첫 모의 수능 출제경향·난이도 분석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7일 실시된 모의평가는 2008학년도 수능의 출제방향과 난이도 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평가원은 이번 출제와 채점 과정을 통해 수능 등급제의 변별력 향상 방안 등 개선점을 찾아 본 수능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모의평가의 영역별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분석한다.

언어영역

2007학년도 수능보다 어렵고, 문학 지문이 짧아졌다.

까다로운 문제 많고 시간 '빠듯'

▲출제경향 = 듣기 평가는 평이했고, 쓰기 문항은 기출 문제 유형을 약간 변형해 출제한 것이 많았다. 비문학 지문들은 독해하기가 약간씩 까다로웠다. 지문당 문항 수가 기존의 4~5문항에서 3~4문항으로 줄었고,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어휘·어법 등의 문항이 줄어들어 대신 지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풀거나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늘어났다. 문학에서는 김소월, 윤동주, 황석영, 박태원 등 유명 작가의 작품 중 비교적 덜 알려진 작품들을 선정했다. 1단 반 이상으로 길게 인용되던 문학

지문의 길이가 1단에서 약간만 넘치는 정도로 짧아졌다. 3점이 5문항, 2점이 40문항, 1점이 5문항이었다. 언어 영역 문항 수가 기존의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어들면서 1점 문항이 크게 준 것이다. ▲난이도 = 아주 쉬운 문항이 거의 없었다. 문학 지문이 짧아졌으나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 시간도 빠듯했다. 답지 전체를 맞거나 틀린 진술로 구성하기보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진술로 구성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답을 찾기 어려웠다.

수리영역

수학 II 문항은 다소 쉬워지고, 수학 I 문항은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등급구분 위한 고난도 문항 출제

▲출제경향 = '가'형의 경우 수학과 수학II 과목을 공통으로 하고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선택과목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문항 수는 수학I 12문항, 수학II 13문항, 선택과목별 5문항이다. '나'형은 수학I 과목만으로 30문항을 모두 출제했다. '나'형의 수학I 10문항이 '가'형과 공통으로 사용됐으며 '가'형과 '나'형 모두 단답형 문항이 전체의 30%가 되도록 했다. 단답형 문항의 답은 세 자리 이하 자연수로 표기하도록 했다. 항상 어렵게 출제되었던 수학II 문항이 다소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I 문항은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또 '나'형만을 위해 출제된 수학I 문항이 다소 어려웠다. 등급 구분을 위한 문항이라고 느껴질 만한

고난도 문항('가'나' 공통 17번, '나'형 23번, '나'형 29번)이 3문항 정도 출제됐다. 모두 수학 I 부분의 문항이었다. 학생들이 다소 까다롭게 느끼는 보기 문항도 '가'형 5개, '나'형 3개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다. '가'형과 '나'형 모두 시험 범위 내에서 전 영역에 걸쳐 골고루 출제됐다. ▲난이도 = 전체 난이도는 2007학년도 수능 수준을 유지하면서 쉬운 문항과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항들을 주축으로 문항을 구성하며 변별력을 위해 고차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도 포함시켰다. '가'형과 '나'형 모두 2007학년도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

외국어영역

2007학년도 수능과 문제 유형이 대동소이하고, 어휘와 구문이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

지문 길이 짧고 어휘·구문 쉬워

▲출제경향 = 문항 배열 순서와 내용 영역별 배점 또한 2007학년도 수능과 유사했다. 읽기는 정확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지만, 듣기 문제는 고난도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돼 어려웠다. 특히 읽기에서는 정답의 단서가 되는 어휘나 문장이 눈에 띄는 문제가 많았다. 특정한 한두 개의 어휘나 문장을 바탕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항과, 대략적인 글의 주제를 파악해 답지에서 유사한 내용을 고르면 되는 비교

적 쉬운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문법 문제는 2문항이 출제되었는데, 모두 그동안 기출 문제에서 자주 다루었던 내용이었다. 사회·문화와 관련된 지문이 비교적 많이 출제됐다. ▲난이도 = 지문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어휘와 구문이 쉬운 편으로, 전반적으로 2007학년도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다. <도움말 : 유웨이중앙교육>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붙임

광주 대광여고 3학년 한 학생이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대비 모의 평가에서 문제 풀이에 몰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모의평가 후 수능 준비 7가지 전략

1. 수능 반영영역을 중심으로 학습 전략을 세워라!
모의평가 성적을 분석한 뒤 정식 모집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군을 점검, 학습 비중을 달리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영역별 성적을 분석해 약점을 보강하라!
언어·수리·외국어 등 배점이 높은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면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언어영역의 경우,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3점 배점이 늘어나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나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난이도에 집착하지 마라!
수능은 상대적 석차가 중요하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난이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며, 중위권 학생들은 아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4. 오답 노트를 활용하라!
모의평가나 기출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들

에 대해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점수를 만회하는 것이 손쉽고도 중요한 전략이다.
5. 고득점의 비법은 교과서이다!
6월 모의평가에서도 교과서 중심의 문제가 출제됐다. 핵심적인 내용은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3년간 기출 문제를 풀어 보고 수능에 대한 감각을 익혀 학습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6. 등급을 올려라!
등급을 점수화할 경우 등급 간의 점수 차가 점수제 수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급이 가장 낮게 나오는 영역을 집중 학습해 등급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 EBS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된다는 생각은 버려라!
실제 수능에서는 EBS 교재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기 보다는 문항 유형이 비슷하고, 소재 및 자료를 활용하는 수준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만기·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

韓商-華商 동반성장 모색한다

<한상> <화상>

전남대-중 북경대 9·10일 국제회의

전남대(총장 김경재)가 세계 유수의 대학인 중국 북경대학교와 공동으로 '세계 한상(韓商)과 화상(華商): 교류 협력과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중국 북경대학 백년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전남대 사회과학대학·글로벌 코리아네트워크특성화사업단·세계한상문화연구단과 북경대학 시장경제연구센터가 공동주관한다. 전남대와 북경대학이 지난해 체결한 '학술교류협약서'에 따라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총 30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양국에서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강정재 전남대 총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지병문 국회의원, 설영홍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동진 포스코 부사장(중국 본부장), 김형근 금호아시아나 중국전략경영본부장 등이 참가한다. 중국에서는 쉬즈훙 북경대 총장, 쟈원귀 중화전국공산연합회 부주석, 후징엔 상무부북부무역사 사장, 쟈원쿠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기업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한다. 임채완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해외의 화상(華商)과 한상(韓商)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경제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남·북시군 지사모집
www.party-food.co.kr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파티외식산업

- ★ 시외·시내 출장전문
- ★ 체육대회·아우회
- ★ 식탁·의자 무료지원
- ★ 연회장 주차장 완비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

SASA & 톰과제리의 새로운 이름 "SASA"
아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해가는 새로운 SASA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최고의 A/S
아동가구 13년! 아동학생가구 시장의 자존심을 세워나갑니다.
신속한 정비: 제품 배송과 동시에 고객님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A/S신청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 SASA 만이 SASA 가구를 A/S를 할 수 있으며, 수리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저렴한 비용: 제품 결함시 1년간 무상A/S, 이후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중 불편한 점이 생기면 A/S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A/S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최고의 Design
프린세스 원목 시리즈 출시
프린세스 원목시리즈는 미소 권력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가볍고 미려한 목리(나무결)를 가지고 있으며, 집성목으로 가공하였기에, 울이,뒤틀림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해 어린 자녀라면 부모님과 함께 잘 수 있으며, 중고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A/S센터 대표번호:1588-4434
홈페이지 www.sasakid.co.kr